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의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는 신입생들이 대학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고, 대학생활을 함께 만들어나갈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는 새내기들의 4년간 대학생활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터에서 새내기들은 '성폭력'을 가장 먼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처음 만나는 선배와 후배의 어색함과 남학우와 여학우의 어색함(남고와 여고가 아직도 많은 실정에서)을 없애고 서로 빨리 '친해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성폭력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서로를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술자리나 게임들이 이미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 단지 물리적 강제를 사용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 사회와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불쾌감과 피해를 드러낼 수 없는(처음부터 '찍히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새내기들이 내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문제제기가 보다 용이하게 함에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여학우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문화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인-를 함께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단순히 강간이나 추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이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성폭력과 환경적인 성폭력(자세한 설명은 내규 참조)도 포함된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과도 같은 남성성기 중심의 도식적인 성폭력의 구분은 피해자에게는 무의미하다. 즉 강간은 매우 나쁜 범죄이고 언어적 성폭력은 가벼운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있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들며,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여도 남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은 발생하기 쉽다. 거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사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성폭력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파렴치한 가해자와 거기에 채수 없게 걸린 피해자'로 단순히 치환되어 버린다. 성폭력은 우리 일상의 성폭력적인 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새터 때 발생하는 성폭력은 우리의 놀이문화, 술자리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의 도덕성만을 비난하면서 쉽게 자기 자신을 가해자와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잊지 말고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중심주의란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에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 해결의 전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많은 경우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음은 '피해자가 제멋대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너무 주관적이다. 기준이 애매 모호하다'와 같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먼저 유혹한 것 아니냐,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러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과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쉽게 이야기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성폭력의 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가 중대하게 생각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새터 내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감하고 고민을 깊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시

1. 새터 내규, 이렇게 전달해보자!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각 단위마다 알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내규에 대한 인지 수준이나 관점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새터 내규에 대해 “지키라고 하니깐 지키는 거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과, 새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적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여 보다 즐거운 새터를 만들고 대학내에서 진정 남녀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합의한 자치규약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나 새내기들이 내규에 대해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또한 새터에는 후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학번 선배들도 많이 오는만큼 선배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규 담당자가 후배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자신보다 고학번 선배에게 내규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그것이 본래 의도대로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고학번 선배들, 복학생들 역시 연세의 일원으로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배가 될지라도 선배에게 내규를 지켜줄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또한 선배는 후배가 잘못을 지적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후배의 이야기라 할 지라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후배가 선배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내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미리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선배일 경우 이렇게 말하겠단, 내가 후배일 경우 이렇게 말하겠단다는 예시문을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보라고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

2. 놀이 문화 되집어 보기 여학생들이, F.M, 김쌤맞이

새터에서 많이 하는 놀이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본다. 주로 몸을 많이 쓰는 놀이들이 많고,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놀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어떤 점이 새터에 적합하고 좋아서 계속 하는 것인지 고민 없이 진행해 오지는 않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새터 내규의 시행의 목적이 대안적 새터 문화 만들기과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의 놀이 문화 환경이 그다지 풍성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모든 학우들이 즐거울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야 하겠다.

여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아이템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까지 많은 놀이들이 남학우 중심이어서 여학우들은 한 두명 끼이거나 구경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새터가 다같이 즐기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만큼 여학우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놀이 아이템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굳이 몸으로 싸우거나 힘자랑을 하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성원들끼리 친해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져야 하겠다.

3. 내규에 대해 가지는 몇 가지 오해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다

작년 내규 시행에 대한 평가에서, “방에 붙여 놓으니 거부감이 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붙어 있는 내규 세칙을 떼어버리려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내규 자체에 대해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에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내규는 어떤 특정한 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놓고 단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원 스스로가 합의하고 약속한 자치 규약을 통해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의해 불편하거나 피해당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내의 성차별적 문화를 없애나가자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 안하고 있으면 본전은 한다

요즘 성폭력 문제가 여기저기서 떠오르고 대학 내에서 성폭력에 관한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을 하는 것인양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의문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풀고 가야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이 무서워 완전히 합의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내규나 성폭력 개념에 대해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제대로 합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으며, 언제나 성폭력 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만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내규를 같이 고민하거나 문제의식을 키워가는 등으로 수위를 높이는 작업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내규가 같이 약속하고 또 앞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것임에 동의한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내규를 고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말안하고 있으면 본전을 깎아 먹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 FM에 대한 이야기 — 자기소개? no!
공감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닐까?
정개회는 자기소개서인본.

} 모두들
씨레하는
느껴야 하지
않을까?

김남산이
여학생들
동자리끼리